

# 한국의 고대악무 연구를 위한 일본의 궁중악무 고찰

: 고구려계 악무의 춤사위 구성 및 궁중악무로서의 위상을 중심으로\*

박태규 \_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 목 차

- I. 서론
- II. 일본 궁중악무의 문헌별 기본 춤사위 및 오늘날의 현황
- III. 『메이지선정보(明治選定譜)』를 통해 본 고구려계 악무의 춤사위 구성
- IV. 고구려계 악무의 궁중악무로서의 위상
- V. 결론

###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부가쿠(舞樂)의 기본 춤사위 및 고구려계 악무의 춤 구성, 그리고 궁중악무로서의 위상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교훈초(敎訓抄)』에는 총 46개의 부가쿠 기본 춤사위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후대에 저술된 문헌들에는 일부 차이가 있어 전승이 단절되거나 혹은 새롭게 추가된 동작이 있다. 고마가쿠(高麗樂) 중, 고구려계 악무인 <다이소토쿠(退宿德)>, <신소토쿠(進宿德)>, <고마보코(狛鋒)>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춤 구성에는 8개의 기본 동작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동작이 역사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0726)

가 아주 오래되었고, 대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고대 당시 한반도 춤은 일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에 전해진 고마가쿠에도 같은 맥락의 동작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무악요록(舞樂要錄)』을 바탕으로 궁중악무로서의 위상을 살펴보았을 때 고구려계 악무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고마가쿠는 고대 한류의 실체로서 한반도 춤과 고구려 악무의 특성을 일부 담지하고 있다. 일본 고마가쿠 연구는 절대적인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한국 고대 악무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부가쿠(舞樂), 고마가쿠(高麗樂), 다이소토쿠(退宿德), 신소토쿠(進宿德), 고마보코(狛鉾), 고구려

---

## 1. 서론

고대 당시 한중일의 동아시아는 민족과 국경을 넘어 활발하면서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악무는 영역적 확장을 이루며 여러 나라로 전파되어 갔다.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의 그것으로, 고려악(高麗樂) 내지 고려기(高麗伎)로 불린 고구려 악무는 중국과 일본에서 빈번히 공연되었다. 일례로 중국 수당 시대에는 칠부기, 구부기, 십부기가 연행되었다. 물론 그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고려기, 즉 고구려 악무로, 중국에서 고려기는 천축악이나 구자악, 강국악 등과 더불어 궁중 연향악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일본에서는 중국에 비해 훨씬 더 깊게 뿌리를 내려 고대 궁중악무의 한 축을 이루기도 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에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궁중악무 부가쿠(舞樂)가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구성은 크게 도가쿠(唐樂)과 고마가쿠(高麗樂)로 이루어져, 고마가쿠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계의 악무가 포함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마가쿠 중 숫자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다름 아닌 고구려계 악무라는 점이다.

중국의 『수서(隋書)』 「지(志)」(第十音樂下)에는 고구려의 「악기로는 탄쟁(彈箏)·와공후(臥箏篴)·수공후(豎箏篴)·비파(琵琶)·오현(五弦)·적(笛)·笙(笙)·소(簫)·소필률(小箏策)·도피필률(桃皮箏策)·요고(腰鼓)·제고(齊鼓)·담고(擔鼓)·패(貝) 등 14종이 1부(部)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sup> 또한 『구당서(舊唐書)』 「지(志)」(第九音樂二)에는 고구려 악무와 관련해 「춤추는 자 4명은 뒤에 추계(椎髻)를 틀고 강말액(絳抹額)을 하였고, 금당(金璫)으로 장식하였으며, 2명은 황색의 균유(裙襦)와 적황색 고(袴)를 입었다. 그 소매는 극히 길게 하며 오피화(烏皮靴)를 신고 쌍쌍이 짝을 맞추어 서서 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sup>2)</sup> 그리고 이상의 내용은 일부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고구려 악무는 백제와 신라는 물론 발해악과 더불어 당시 동아시아 악무 문화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고구려 악무 연구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절대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그것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서(隋書)』나 『구당서(舊唐書)』 등의 중국문헌 및 고구려 고분에는 고구려 악무와 관련된 기록과 그림 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는 매우 단편적인 것들로, 고구려 악무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구려 악무 연구는 우선적으로 폭넓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하는데, 오늘날 일본에 남아있는 고마가쿠 관련 자료는 한반도의 고구려 악무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다.

1) 『隋書』 「志」(第十音樂下): “樂器有彈箏·臥箏篴·豎箏篴·琵琶·五弦·笛·笙·簫·小箏策·桃皮箏策·腰鼓·齊鼓·擔鼓·貝等十四種, 爲一部.”

2) 『舊唐書』 「志」(第九音樂二): “舞者四人, 椎髻於後, 以絳抹額, 飾以金璫. 二人黃裙襦, 赤黃袴, 極長其袖, 烏皮靴, 雙雙並立而舞.”

이하 본고에서는 한국의 고대악무 중 하나인 고구려 악무 및 한일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첫째, 일본의 궁중악무인 부가쿠의 기본 동작에 관해 살핀 후, 둘째, 한반도계인 고마가쿠 중 고구려계 악무의 춤 구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셋째, 그것의 궁중 악무로서의 위상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고구려계 악무의 춤 동작 및 구성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랜 역사뿐만 아니라 고마가쿠 중 수치 상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크고 작은 역사적 변동 속에서도 비교적 단절이나 굴절 없이 전승되고 있어 고대 한반도계 악무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II. 일본 궁중악무의 문헌별 기본 춤사위 및 오늘날의 현황

알려진 바와 같이 부가쿠의 기본 춤사위가 기록된 일본 문헌으로는 대표적인 『교훈초(敎訓抄)』가 있다. 『교훈초』는 1233년 고마노 지카자네(狛近真)가 저술한 악서(樂書)로 춤과 음악, 악기, 악인(樂人)은 물론 도가쿠와 고마가쿠 악곡의 유래, 의상, 특징, 번무(番舞), 전승 양상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기술해 놓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부가쿠의 기본 동작명 및 간단한 해설을 붙여놓았다. 『교훈초』 외에 부가쿠의 기본 동작에 관해 기술해 놓은 것으로는 『체원초(體源抄)』와 『악가록』, 『속교훈초』 등이 있다. 『체원초』는 도요하라노 무네아키(豊原統秋)가 1512년에 저술한 악서로, 『교훈초』와 마찬가지로 음악과 춤, 악기 외에 전문 악인들의 계보 등에 관해 기술해 놓았다. 『악가록(樂家錄)』은 1690년 아베 스에히로(安倍季尚)가 저술한 것으로 『교훈초』나 『체원초』와 마찬가지로 종합 악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의 『속교훈초(續敎訓抄)』는 『교훈초』의 속편 격으로 고마노 지카자네의 후손인 고마노 도모카즈(狛朝葛)가 1270년경 부터 1322년경 까지 기록한 것이다.

『체원초』와 『악가록』, 『속교훈초』 등은 공통적으로 앞서 제작된 『교훈초』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각기 다른 저술 당시의 문화적 배경은 물론 악무 환경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어 그 문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교훈초』를 포함해 이상의 문헌에 기록된 부가쿠의 기본 동작을 정리해 보면 이하와 같다.

	教訓抄	續教訓抄	體源抄	樂家錄	明治撰定譜	
					左舞	右舞
1	見方	○	○	○	見	見
2	仰方	○	○	○		
3	肩指	○	○	○		
4	肩係手	○	○	○		
5	伏肘	○	○	○	○	○
6	去肘	○	○	○	○	○
7	合肘	○	○	諸手合		○
8	合掌	○	○	○		
9	重手					
10	披肘	○	○	○	○	
11	指肘	○	○	○	○	
12	持上手	指上手	○	○		
13	打替	○				
14	下肘		○			
15	振肘	○	○	○		
16	違肘	○	○	○		○
17	呂乙	○	○	左呂乙		
18	卷手	○	○	○		○
19	曳手	○	○	○		
20	違手	○	○	○	取違手	
21	折手	○		○		
22	約手	○	○	○		
23	打改手	○		○	○	
24	覆手	○	○	○	打覆手	
25	面係手	○	○	○		
26	面ナヅル手	○	○	○		
27	袖取手	○	○	○	○	
28	袍前取手	○	○	○	○	
29	腰婦	○	○	○	○	
30	突	腰突		腰突	○	○

	教訓抄	續教訓抄	體源抄	樂家錄	明治撰定譜	
					左舞	右舞
31	腰付	○	腰肘	○		
32	延立	○	○	○		
33	落居	○	○	○	○	○
34	押足	○	○	○	○	
35	鴉踏	○	○	○		
36	爪立	○	○	○	○	
37	搔足	○	○	○		
38	躍(踊)	○	○	○	○	○
39	走	○	○	○		走行
40	儒趨					
41	居	○	○	○		
42	廻	○	○	○		
43	跣足	○	○	○		
44	踵立	○	○	○	立	立
45	寄	○	○	○	○	○
46	印		○			劍印
		並寄		並寄		

위의 표는 『교훈초』에 기록된 동작명 및 후대의 문헌 기록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교훈초』에는 도가쿠와 고마가쿠의 구분 없이 40개가 넘는 동작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에 저술된 『속교훈초』와 『체원초』, 그리고 『악가록』에도 『교훈초』에 보이는 동작명이 대부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교훈초』 당시의 동작이 후대로 이어져 최소 『악가록』 당시까지는 전승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차이도 있어 일례로 ‘히키하시리(儒趨)’와 ‘가사네테(重手)’는 『교훈초』 이외에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또한 ‘우치카우(打替)’의 경우 『교훈초』와 『속교훈초』에는 기록이 남아있는 반면 『체원초』와 『악가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사구루카이(下肘)’의 경우도 『교훈초』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악가록』에는 남아있지 않다. ‘쓰쿠(突)’의 경우도 『교훈초』 이후, 『악가록』에는 ‘고시쓰쿠(腰突)’ 라는 동

작명이 보인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교훈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나미요루(並寄)’가 『악가록』에는 기록되어 있다.

한편, 『메이지선정보(明治選定譜)』는 1876~1888년 사이에 찬술된 종합 악서로, 여러 계통의 춤과 음악을 정리 통합한 것이다. 오늘날 일본의 궁내청 악부에서 전승하고 있는 악곡들은 모두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서에 도가쿠와 고마가쿠의 동작명은 물론 그것에 대한 자세한 해설까지도 첨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선 문헌에 보이는 동작명이 그대로 기록된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것 또한 있다. 구체적으로는 46개에 달하는 『교훈초』의 동작명 중, 『메이지선정보』에 기록된 것은 22개뿐이다. 좌무가 17개, 우무가 13개정도인데, 물론 이 중에는 좌우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동작명 또한 포함되어 있다.

『교훈초』와 『메이지선정보』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13종의 우무 동작에 관해 살펴보면<sup>3)</sup>, 먼저 미루(見る)로 좌우를 보는 동작이다. 다음으로 후세가이(伏肘)는 양 팔을 벌리고 한쪽 다리를 직각으로 올렸다 내린다. 그리고 한쪽 팔을 올렸다 반대로 내린 후 두 팔을 돌려 한 팔은 허리에, 다른 한 팔은 앞으로 둥글게 뻗는다. 사리가이(去肘)는 한쪽 팔을 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돌려 반대 방향으로 향한 후 다시 돌려 원래의 방향으로 뻗는다. 이 때 한쪽 다리는 앞으로 뻗었다 옆으로 벌린 후 모은다. 아와세가이(合肘)는 두 팔을 앞으로 둥글게 뻗었다 내린 후 다시 올려 양쪽으로 벌린다. 이 때 한쪽 다리를 사선으로 뻗어 발 뒤꿈치를 세운다. 지가이가이(違肘)는 첫 번째 무원이 미기스테가이(右捨肘)를 할 때 두 번째 무원이 다른 쪽에서 히다

3) 고마가쿠의 동작에 관하여는 박태규, 「일본의 고마가쿠(高麗樂)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89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12; 「일본의 고마가쿠(高麗樂) 연구:〈린가(林歌)〉의 원천 탐구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회』 제50집, 무용역사기록학회, 2018에도 일부 언급되어 있다.

리스테가이(左捨肘)를 하는 것이다. 스테가이는 한쪽 방향으로 양팔을 높이 들었다가 돌려내려 반대쪽으로 향하게 한 후, 한쪽 다리를 직각으로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이다. 마쿠테(卷手)는 두 팔을 뻗어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동작이다. 쓰쿠(突)는 한쪽 다리를 직각으로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다. 오치이루(落居)는 양 다리를 벌리고 양손을 허리에 얹은 후 무릎을 굽혀 앉는 동작이다. 오도루(躑, 躡)는 무릎을 굽혔다 점프하는 동작이다. 하시리유쿠(走行)는 좁은 보폭으로 달리듯 움직이는 동작이다. 다테루(立)는 다리를 사선으로 뻗어 뒤꿈치를 세우는 동작이다. 요루(壽)는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상태에서 한쪽으로 모으는 동작이다. 겐인(劍印)은 검지와 중지를 검처럼 세운 후 앞으로 모으는 동작이다.

이상의 동작들은 좌우를 보는 단순한 것에서 시작해 양팔과 다리를 복잡하게 사용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동작들은 곧 화려하면서도 예술성 높은 고마가쿠 작품들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Ⅲ. 『메이지선정보(明治選定譜)』를 통해 본 고구려계 악무의 춤사위 구성

다음으로는 고마가쿠의 고구려계 악무 중, 〈다이소토쿠(退宿徳)〉, 〈신소토쿠(進宿徳)〉, 〈고마보코(狛鏝)〉의 춤 구성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고구려계 악무로는 이상의 3개 악곡 외에 〈고마이누(狛犬)〉, 〈고마류(高麗龍)〉, 〈조보라쿠(長保樂)〉, 〈깃칸(桔槔)〉의 총 7개 악곡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고마류〉와 〈고마이누〉, 〈깃칸〉의 경우는 전승이 단절되어 현재 연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조보라쿠〉는 『악가록』에 「當曲破與急本別曲也」라고 기록되어 있어, 원래는 별개의 악곡이 하나의 곡으로 통폐합되어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교훈초』에 악곡명이 〈조



보라쿠>가 된 것은, 조보(長保) 연간(999-1004)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의 전승에 일부 변동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전승 상, 단절이나 굴절을 겪지 않은 세 악곡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退宿徳	進宿徳	拍鉦
1	七拍子	七拍子	向合太鼓に応じ正面向
2	伏肘/左向右向	伏肘/左向右向	棹左肩掛 搔合/中略/岐呂利/中略
3	綾取/正面向	綾取/左右正面	伏肘/左向指披/中略/合向棹立左上右下持/落居
4	左右伏合披	伏合披/右左足摺踏/左向/合肘/左向右向	中略/押足/中略
5	向合/右左摺押足	伏肘/計波奈志/左向右向	棹立ナガラ舞台下ス/ 棹左持右披
6	合肘入違二度	捨肘入違二度/後面正面	右足突足立/合右足立
7	渡手岐呂利左上/ 左足立右下右足立四度	渡手合肘/伏合披/ 左右足摺踏	棹右持左披/左足突右足立/ 合左足立
8	中略	向合合肘/入違二度/ 正面後面	棹左持右披/右足突左足摺/ 肩掛きろり右足突
9	左肘抱/踏違左右押足二度	伏肘/計波奈志二度/ 正面後面	跪棹舞台置
10	伏肘入違二度	渡歸如前/中略	左右腰に付拍子に応じ立/ 渡手合肘四度
11	合肘/後正面	伏肘/左向右向/合肘/ 左向右向	入違捨 左右足摺二度
12	渡歸如前四度	綾取/左右正面/上岐呂利/ 左右足立	右踏替/ 左右頭上に合向合腰に付/ 中略
13	中略	捨/左右足摺/合肘/左向右向	左右頭上に振違 左右腰に付/ 中略
14	右捨/右足突/合向合/左橫 飛 右橫 飛	伏肘/計波奈志/左向右向	肩掛きろり/右足突/ 渡歸手合肘四度/入違捨/中略
15	左捨/左橫 飛	手打違/右上右足/左右手腰打	跪棹左頭執持 左逆手/中略/向指
16	右捨/右橫 飛	耳邊岐呂利	右追足/右足後退

	退宿徳	進宿徳	狛鉾
17	右捨肘/正面向	左寄/右振左振/左ヲ見 /右足突左足立	棹外 卷 伏 左足突/ 右棹立持 腰に付
18	中略/左袴取/正面向/右横 飛	左卷/右足突 左足/後面/指手 打違/左上左足/左右手腰打	三四ろの間に 行 此の間 太鼓無定員 四人一列正面向 行 棹の頭舞台下す
19	左伏	耳邊岐呂利/右寄右向左振右 振/右ヲ見/左足突右足立	後面向棹引 端逆行
20	右袴取 左横 飛	右卷/左足突 右足/ 後面指左卷指/正面	立止 右足立/左披 左足突 /左伏右足立
21	中略/右捨肘 左向	右貫肘/左貫肘	左捨 左足摺 右足踏替/ 腰に付 正面向
22	右卷(寄)	合肘/右向左向/伏肘/右向	膝折 棹左頭に執持左逆手 左足立
23	卷合寄 /後面向	右捨肘/右足立/左向/右卷寄	搔合 左寄/落居 伸立
24	合肘/落居/左右腰二付	卷合寄/後面/合肘	棹左頭執持 左右左見左向 後面向
25	退場	退場	退場

이상은 『메이지선정보』의 무보를 중심으로 세 악곡의 춤사위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sup>4)</sup> 먼저 <다이소토쿠>의 춤 진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도입부는 나나효시(七拍子) 부분으로 이것은 알려진 바, 다이코(太鼓)를 7번치는 사이에 추는 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하기도 하는데, <다이소토쿠>와 <신소토쿠>가 대곡인 만큼 초두 부분에 나나효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전개로 이 부분에서는 후세가이(伏肘), 아야토리(綾取), 후세아와세히라쿠(伏合披), 아와세가이(合肘), 이레치가우(入違), 히다리가이타쿠(左肘抱) 등, 다양한 동작이 사용된다. 또한 와타리테(渡手)라고 해 무대 반대쪽으로 건너가 위치를 바꾼 후, 와타리가에리(渡歸)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등, 무대를 넓게 사용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반대 방

4) 본 표의 작성에는 일본의 전문악사 三田徳明 씨와 鈴木祥江 씨의 도움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향으로 건너갈 때 위와 아래로 두 팔을 뻗어 기로리(岐呂利)를 하면서 이동한다는 것인데, <다이소토쿠>에는 기로리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로리는 손목이나 목 등을 반대 방향으로 틀거나 꺾는 동작이다. 마지막의 종결부에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도부(飛), 하카마토리(袴取), 미기스테가이(右捨肘), 마키아와세요루(卷合奇), 오치이루(落居) 등의 동작으로 춤을 춘 후 퇴장한다.

<다이소토쿠>에 사용되는 동작 중, 주목해 볼만한 것은 히다리가이타쿠와 하카마토리(袴取)이다. 히다리가이타쿠는 왼 쪽 팔을 뻗어 팔꿈치를 세운 후 오른 쪽 손으로 왼쪽 소매를 잡고 좌우로 이동하는 동작이다. 반면 하카마도리는 문자 그대로 하카마를 살짝 잡아 올리는 동작이다. <다이소토쿠>의 이러한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게다가 좌무인 도가쿠에도 소데도루테(袖取手)나 혹은 호노마에도루테(袍前取手)처럼 소매나 포의 앞부분을 살짝 잡는 등의 유사한 동작이 있어, 히다리가이타쿠나 하카마도리가 반드시 <다이소토쿠>만의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여타의 고구려계 악무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바지춤을 살짝 잡아 올리는 동작은 마치 고구려인들의 인사법인 궤배(跪拜)의 전 단계 동작을 연상하게 해 매우 흥미롭다.

<신소토쿠>의 진행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입부는 나나효시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다이소토쿠>와 <신소토쿠>는 동일 계열의 춤으로, 다이(退)와 신(進)으로 구별되어 이칭으로는 각각 오이마이(老舞)와 와카마이(若舞)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 만큼 춤의 내용이나 진행 또한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도입부의 나나효시와 마찬가지로 전개 부분의 춤 구성 또한 닮아있다. <신소토쿠>의 전개 부분은 후세가이(伏肘), 아야토리, 후세가이히라쿠(伏肘拔), 아와세가이 등의 동작으로 춤을 춘 후, 와타리테로 무

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가에리테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결부에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후 히다리마쿠(左卷), 우좌(右左) 후루테(振手), 히다리미(左見), 누키가이(貫肘), 마쿠(卷), 요루(寄) 등의 동작으로 춤을 춘 후 퇴장한다. <다이소토쿠>와 비교해 <신소토쿠>의 특징적인 동작은 게하나시(計波奈志)와 누키가이이다. 게하나시는 양팔을 벌리고 양 무릎을 굽혀 방향을 바꾼 후, 한쪽 다리를 직각으로 들어 올렸다 내린다. 그리고 다시 양손을 다른 방향으로 올렸다 내린 후, 한 손은 가슴 앞으로, 한 손은 허리에 올리는데 이 때 다리는 앞으로 뻗어 발뒤꿈치를 세운다. 이에 반해 누키가이는 한 팔을 머리 위로 높게 들고 같은 쪽 다리를 직각으로 들어 올린 후 다시 아래쪽으로 내린다. 이때 팔을 앞쪽으로 뻗어 내리는데, 내리는 팔과 가슴 사이로 반대쪽 팔을 들어 올린다. 마찬가지로 게하나시와 누키가이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같은 계열의 춤이라 할 수 있는 <다이소토쿠>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들 동작에 의해 일명 <와카마이>라 불리는 <신소토쿠>는 보다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마보코>의 춤 진행 또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도입부로 무원들이 등장해 샷대를 들고 춤을 춘다. 춤의 중심은 샷대로, 기로리, 쓰쿠(突), 오치이루(落居), 다테루(立), 히라쿠(披), 쓰루(摺)와 같은 기본 동작에 샷대를 어깨에 메거나 혹은 무대에 직각으로 세우는 등의 동작을 더해 다양한 춤동작을 선보인다. 다음은 전개로 무원들이 무릎을 꿇고 샷대를 무대에 내려놓고 춤을 추는 부분이다. 특히 이때는 무원들이 와타루테라고 하여 춤을 추면서 무대 반대편으로 건너가 위치를 바꾸는데, 『메이지선정보』에는 이때 아와세가이 4번을 통해 위치를 바꾸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와세가이 2번으로 자리를 바꾼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은

이레치가우이다. 이레치가우란 무원들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 등을 맞대고 두 팔을 한쪽으로 모은 후 중심 이동과 함께 앞쪽으로 크게 돌려 반대 방향을 향하도록 하는 것인데, 일본의 전문악사 미타 노리아키(三田徳明) 씨에 의하면 이것은 마치 선상에서 출렁이는 물결을 표현한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고 한다. 이후 무원들은 다시 아와세가이 2번을 통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종결부에서는 무대 위에 내려놓았던 샷대를 다시 들고 춤을 춘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노로 물살을 가르듯 샷대를 돌리거나 바다에 담그는 듯한 동작은 물론, 목적지를 응시하듯 정지된 상태에서 고개를 좌, 우, 좌의 순으로 천천히 바라본다. 그리고는 도착을 알리듯 제자리에서 각자 크게 한 바퀴 돈 후 끝을 맺는다.

한편, 세 작품의 춤 구성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아와세가이, 후세가이, 스루, 마쿠, 요루, 쓰쿠, 다테루, 미루 등의 기본 동작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들에 각각의 다양하면서도 특징적인 동작들이 더해져 악곡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악곡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동작들은 저술시기가 가장 빠른 『교훈초』에 기록된 것들로,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마가쿠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한반도 삼국 및 발해에서 유래한 것들이다. 그것들이 명확히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마보코〉처럼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도래 등 한반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형성, 발전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 악곡에 포함된 기본 동작은 고마가쿠의 역사 및 전승, 그리고 한반도와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대악무를 연구하는 측면에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기의 동작들 중 아와세가이와 후세가이를 제외한 미루, 스루, 쓰쿠, 다테루, 요루, 마쿠테는 사방을 보거나 혹은 다리를 움직이고 중심을 옮기는 한

편 양 팔을 뻗어 돌리는 등의 단순 동작들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통점 또한 있어 춤은 물론 일상의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작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상기해야만 하는 것은 고마가쿠가 한반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성립한 만큼, 그것에 한반도 춤의 기본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sup>5)</sup>에 의하면 고마가쿠에는 한반도 고대악의 성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마가쿠 중 고구려계 악무로, 앞에서 살핀 <신소토쿠>와 <다이소토쿠>는 심목고비 등 한반도 고구려 악무의 특성 중 하나인 국제성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춤동작 또한 한반도의 요소 및 특징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한국전통무용연구』에 의하면 고대의 한반도에서는 일정한 시기를 가리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 중 마한의 경우, 5월과 10월에 제사를 지내며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때의 춤은 앞 사람의 뒤를 서로 따르며, 땅을 밟으면서 구부렸다 짓히는 것이었다고 한다.<sup>6)</sup> 여기서 땅을 밟고 몸을 구부렸다 다시 짓히는 등의 동작은 농사는 물론 일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와 맥을 같이해 일본 고마가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고대의 한반도 춤 또한 일상의 동작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인데, 실제로 한국무용가 김삼진 교수에 의하면 한국 전통춤의 기본 동작 중 외사위는 귀밑머리를 넘기는 동작, 그리고 아니리는 좌우로 고개를 돌리는 동작, 굴신은 발걸음을 떼기 위한 동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sup>7)</sup> 한반도 고대악무에서 일상의 동작이 곧 춤으로 재연되었다면, 일본으로 전해진 고마가쿠에도 일상의 동작이 그대로 담겨있을 가능성이 있다.

5) 박태규, 「일본 고대의 한류와 그 특이성」, 『역사 속의 한류』, 역락, 2021, pp.123-149 참조.

6) 장사훈, 『한국전통무용연구』, 일지사, 2003, p.15.

7) [artExEBS] 예술가의 물건 VOICE(<https://www.youtube.com/watch?v=06JcQGp-YFU> 2022.03.01)

향후 일본 고마가쿠의 오랜 동작인 미루와 스루, 쓰쿠, 다테루, 마쿠테, 요루 등의 기본 동작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IV. 고구려계 악무의 궁중악무로서의 위상

한편, 고마가쿠를 포함한 부가쿠는 황실 및 궁중의 각종 행사에서 공연되었다. 박전열은 「가가쿠(雅樂)와 궁중행사」<sup>8)</sup>에서 부가쿠가 연행되는 행사를 크게 7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정월의 연례행사, 둘째, 불교행사, 셋째, 신사의 제례, 넷째, 11월의 추수감사 제의, 다섯째, 승부를 겨루는 경기의 행사, 여섯째, 자연을 즐기는 행사, 일곱째, 축연과 조근행행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첫 번째의 정월행사는 1일의 간지쓰세치에(元日節會), 7일의 아오우마노세치에(白馬節會), 그리고 14일과 16일에 열렸던 도카세치에(踏歌節會)를 말한다. 다음으로 세 번째의 신사제례란 천황가를 수호한다는 가모신사(賀茂神社)와 이와시미즈신사(岩清水神社)의 제례를 의미한다. 다섯째 승부를 겨루는 경기란 스모(相撲)나 궁술, 그리고 경마 등을 의미하며, 여섯째 자연을 즐기는 행사란 3월 3일의 곡수연, 7월 7일의 칠석 행사, 8월 15일의 중추연, 9월 9일의 중양연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 일곱째의 축연이란 관례나 혼례 등을 의미한다. 부언할 필요도 없이 부가쿠는 이렇듯 다양한 행사에서 거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빈번히 공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의 공연 상황 및 각 악곡의 공연 빈도를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다만, 『무악요록(舞樂要錄)』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행사에서의 부가쿠 공연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본 자료를 통해 각 고마가쿠의 악곡별 공연 빈도에 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8) 박전열, 「가가쿠(雅樂)와 궁중행사」, 『일본 예악무의 융합적 연구』, 민속원, 2014, pp.156-169 참조.

알려진 바와 같이 『무악요록』은 10~12세기 사이, 조근행행이나 대법회 등에서의 여러 공연들에 관해 기록해 놓은 사료이다. 상, 하 2권으로 이루어져, 특히 상권에는 오와(應和, 961-964)부터 호겐(保元, 1156-1158) 당시의 답공양, 당공양(堂供養), 팔강(八講), 부가쿠만다라공(舞樂曼陀羅供), 어팔강(御八講), 조근행행(朝觀行幸), 어하(御賀), 스모질(相撲節) 등에서의 공연 기록을 담고 있다. 『무악요록』을 중심으로 오와에서 호겐에 걸친 공연상황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曲名	大法會	八講	朝觀行幸	御賀	相撲節
1	新鳥蘇	25	2	16	3	2
2	古鳥蘇	5	0	13	7	19
3	退宿德	1	0	8	0	0
4	進宿德	0	1	1	0	0
5	狛鉾	19	1	18	0	7
6	俱論甲序	0	0	0	0	0
7	志岐	3	1	3	6	4
8	埴破	1	2	2	0	0
9	歸德侯	30	2	20	0	18
10	都鬱	0	0	0	0	0
11	阿夜岐理	1	0	3	0	5
12	頑徐	0	0	0	0	0
13	王仁庭	1	1	6	7	2
14	崑崙八仙	7	1	8	0	2
15	酣醉樂	1	0	0	0	2
16	長保樂	1	2	8	0	0
17	延喜樂	2	0	5	0	1
18	新鞞鞞	16	2	11	0	6
19	胡德樂	2	1	0	0	0
20	狛犬	0	0	0	0	14
21	石川樂	0	0	0	0	0

9) 본 표의 작성에는 연구자 이은누리 씨의 도움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曲名	大法會	八講	朝觀行幸	御賀	相撲節
22	胡蝶樂	0	0	0	0	0
23	納蘇利	44	3	45	8	10
24	高麗龍	0	0	0	0	0
25	新河浦	0	0	0	0	0
26	進曾利古	0	0	0	0	0
27	桔槔	0	0	0	0	16
28	常武樂	0	0	0	0	0
29	作物	0	0	0	0	0
30	仁和樂	0	0	0	0	0
31	葦波	0	0	0	0	0
32	鞞切	0	0	0	0	0
33	啄木	0	0	0	0	0
34	林歌	6	3	9	4	0
35	蘇志摩利	1	1	0	0	0
36	地久樂	40	3	44	6	0
37	登天樂	0	0	0	0	0
38	白濱	0	0	0	0	0

이상은 대략 대법회와 팔강, 조근행행, 어하, 스모절로 나누어 각 악곡의 공연 빈도수를 정리한 것이다. 대법회란 부처님께 탑이나 불전(佛殿), 부가쿠 등을 올리는 탑공양, 당공양, 부가쿠만다라공의 다양한 법회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고 팔강은 법화경 여덟 권을 아침저녁에 한 권씩 나흘 동안 독송하고 공양하는 것이다. 어하는 천황이 특정 사원이나 사찰에 참배 가는 것을 의미하며, 조근행행이란 천황이 부모를 찾아뵙기 위해 외출하는 것을 말한다. 스모절이란 천황이 스모를 관람하고 여러 대신들과 함께 연향을 즐기는 것으로 궁중에서 행해지는 여러 행사 중 하나였다. 어쨌든 위의 표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궁중 및 황실 관련 행사에서 압도적인 빈도수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나소리(納蘇利)>이다. <나소리>는 대법회를 비롯해 팔강과 조근행

행, 어하, 스모절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공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법회와 조근행행에서는 40회가 넘는 공연 횟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나소리>가 용을 소재로 한 강렬한 인상에 예술적 미감은 물론 그것의 번무로 공연되는 <료오(陵王)>의 영향 또한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마가쿠 중 고구려계 악무는 각 행사에서 골고루 연행된 <고마보코>를 필두로, 스모절에서 두각을 나타낸 <고마이누>와 <깃칸> 등, 전체 38개 곡목 중 공연 빈도수 상 상위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마보코>는 한반도에서 건너오는 도래인 내지는 사신을 모티브로 한 악곡으로 오색으로 채색한 샷대를 들고 춤을 춘다. 4인무의 중곡(中曲)으로 규모는 물론 3미터가 넘는 샷대를 들고 춤을 추어야만 해 결코 쉬운 공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보코>는 대법회에서 19회, 조근행행에서 18회, 스모절에서 7회 공연되었는데, 이것은 각각의 행사별 5위와 4위, 그리고 6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고마이누>와 <깃칸>은 공통적으로 액막이 기능이 있는 악곡들이다. 일본의 사원 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마이누는 원래 수호의 능력을 지닌 상상의 동물로, 벽사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존재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이미지는 일상은 물론 전통예능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깃칸>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악고(樂考)』에 이른바 결한희(乞寒戲)라고 기록되어 있다.<sup>10)</sup> 결한이란 문자 그대로 추위를 구한다는 것으로, 고대 당시 구자나 고창, 강국 등의 서역에서는 추운 겨울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추위를 구하고 또한 물을 통해 사악한 것들이 씻겨나가길 기원하였다.<sup>11)</sup> <고마이누>와 <깃칸>은 각각 스모절에서

10) 『樂考』: “又作若干吉間唐の世夷部乞寒戲”

11) ‘결한’에 관하여는 박태규, 「일본 연향악의 자국 내 재형성에 관한 연구: 부가쿠(舞樂) <소마쿠샤(蘇莫者)>를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vol.28,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6, pp.57-86 참조.

14회와 16회의 공연을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전체 38개 곡목 중 4위와 3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고마이누〉나 〈깃칸〉과는 달리, 〈다이소토쿠〉와 〈조보라쿠〉는 조근행행에서 비교적 자주 공연되었다. 〈다이소토쿠〉는 서역계 가면을 쓰고 공연하는 대곡(大曲)으로, 6인 내지는 4인무로 공연된다. 〈조보라쿠〉는 언급한 바, 조보(長保) 연간(999-1004)에 ‘호소로쿠세리(保曾呂久世利)’와 ‘가리아스(加利夜須)’가 합해져 하나의 곡을 이룬 경우이다. 〈다이소토쿠〉와 〈조보라쿠〉는 조근행행에서 동일하게 8회씩 공연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악곡 중 6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여타의 악곡들에 비해 공연 빈도가 극히 적게 나타난 것은 〈신소토쿠〉와 〈고마류〉이다. 〈신소토쿠〉는 〈다이소토쿠〉와 마찬가지로 서역형 가면을 쓰고 공연하는 악곡이다. 위의 표에는 〈신소토쿠〉는 팔강과 조근행행에서 각각 1회씩 공연된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다른 악곡들에 비해 〈신소토쿠〉가 자주 공연되지 않은 이유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다만 두 악곡이 동일계열로, 〈신소토쿠〉보다는 〈다이소토쿠〉에 대표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고마류〉는 단 한차례의 공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마류〉는 2명의 무원이 조형의 말을 타고 공연하는 춤으로 일명 ‘고마카타(駒形)’라고도 불리는 악곡이다. 이것이 주로 연행된 것은 5월 5일이라고 하는데, 단오절 날 천황이 가마를 타고 궁중의 무덕전(武德殿)에 행차할 때 그 앞에서 연행된 것이 바로 〈고마류〉였다. 그리고 이것의 번무로는 〈소호비(蘇芳菲)〉가 연행되었다. 〈고마류〉와 〈소호비〉는 모두 액을 막는 기능이 있었다. 다만 위의 표에서 〈고마류〉의 공연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악요록』에는 단오절 행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고구려계 악무는 〈나소리〉처럼 최고의 인기 악곡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여러 곡이 각각의 특색을 지니며 다양한 행사에서 공연되었고, 또한 그것들의 공연 빈도수는 상위에 위치해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계 악무가 전체 38개 고마가쿠 중, 악곡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 공연에 있어서도 일정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해 고구려계 악무는 악곡 수와 실제 공연에 있어 비교적 상위에 위치하며 다양한 행사에서 공연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고구려계 악무는 궁중악무로서 결코 적지 않은 영향력과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 V. 결론

이상으로 일본의 궁중악무인 부가쿠의 기본 동작 및 고마가쿠 중 고구려계 악무의 춤사위 구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불어서 고구려계 악무의 궁중악무로서의 위상 등에 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부가쿠의 기본 춤사위가 기록된 문헌으로는 『교훈초』 외에 『체원초』와 『악가록』, 『속교훈초』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선대의 문헌인 『교훈초』에는 도가쿠와 고마가쿠의 구분 없이 46개의 동작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후대에 저술된 『체원초』 및 『속교훈초』, 『악가록』에도 『교훈초』의 동작명이 대부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차이도 있어 ‘히키하시리’나 ‘가사네테’처럼 『교훈초』 이외에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교훈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나미요루’가 『악가록』에는 기록되어 있는 경우 또한 있다. 한편, 『교훈초』의 동작명 중, 19세기에 찬술된 『메이지선정보』에 수록된 동작명은 22개이다. 좀 더 자세히 적어보면 좌무가 17개, 우무가 13개 정도로, 물론 이 중에는 좌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 우무에 사용된 동작으로는 미루, 후세가이, 사리가이, 아와세가이, 지가이가

이, 마쿠테, 쓰쿠, 오치이루, 오도루, 하시리유쿠, 다테루, 요루, 겐인 등이 있다.

다음으로 〈다이소토쿠〉, 〈신소토쿠〉, 〈고마보코〉의 춤 구성 및 진행은 크게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들의 춤 구성에는 공통적으로 아와세가이, 후세가이, 스루, 마쿠, 요루, 쓰쿠, 다테루, 미루 등의 기본 동작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상의 것들이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와세가이와 후세가이를 제외하고는 단순 동작으로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고대 당시, 한반도 제의에서는 땅을 밟으면서 구부렸다 짓히는 동작들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땅을 밟고 몸을 구부렸다 다시 짓히는 등의 동작은 일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즉, 고대의 한반도 춤 또한 일상의 동작들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고대 한반도에서 일상의 모습이 곧 춤동작으로 재연되었다면 일본에 전해진 고마가쿠에도 당연히 같은 맥락의 동작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무악요록』을 바탕으로 고마가쿠의 공연 빈도수를 정리해 보았다. 고구려계 악무는 각 행사에서 고르게 연행된 〈고마보코〉를 필두로, 스모절에서 두각을 나타낸 〈고마이누〉와 〈깃칸〉 등 전체 38개 곡목 중 공연 빈도수 상 상위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계 악무는 총 7개 악곡으로 수치 상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악곡 수뿐만 아니라 실제 공연에서도 상위에 위치하며 궁중악무로서 결코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당나라 시인 이백은 ‘고구려’라는 시에서 ‘금화달린 절풍모 쓰고서, 백마들은 천천히 도누나, 펄럭이는 너른 옷소매, 해동에서 날아온 새인가(金花折

風帽, 白馬小遲回, 翩翩舞廣袖, 似鳥海東來)<sup>12)</sup>라고 노래한 바 있다. 고구려 악무는 춤 한류의 원조로서 동아시아 궁중예술의 일면을 장식하였다. 일본의 고마가쿠는 고대 궁중악무 한류의 실체로서 당시의 한반도 내지는 고구려 악무의 특성을 일부 담지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고마가쿠 연구는 절대적인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한국의 고대 악무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고에서 진행하지 못한 고마가쿠의 오래된 기본 동작 분석은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2년 4월 28일

논문 심사일 : 2022년 5월 20일

게재 확정일 : 2022년 6월 6일

---

12) 평상바이 외 저, 강영순 외 옮김, 『중국무용사』, 민속원, 2016, p.185, 재인용.

## 참고문헌

『舊唐書』

『隋書』

『教訓抄』

『明治撰定譜』

『舞樂要錄』

『續教訓抄』

『樂家錄』

『體源抄』

박전열, 「가가쿠(雅樂)와 궁중행사」, 『일본 예악무의 융합적 연구』, 민속원, 2014.

박태규, 「일본 고대의 한류와 그 특이성」, 『역사 속의 한류』, 역락, 2021.

\_\_\_\_\_, 「일본의 고마가쿠(高麗樂) 연구:〈린가(林歌)〉의 원천 탐구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회』 제50집, 무용역사기록학회, 2018.

\_\_\_\_\_, 「일본 연향악의 자국 내 재형성에 관한 연구:부가쿠(舞樂) 〈소마쿠샤(蘇莫者)〉를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Vol.28,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6.

\_\_\_\_\_, 「일본의 고마가쿠(高麗樂)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89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12.

장사훈, 『한국전통무용연구』, 일지사, 2003.

평상바이 외 저, 강영순 외 옮김, 『중국무용사』, 민속원, 201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21.09.01)

artExEBS 「예술가의 물건 VOICE」, <https://www.youtube.com/watch?v=06JcQGp-YFU> (검색일 2022.03.01)

www.kci.go.kr

## **A Study on the Japanese Court Dance for the Study of Ancient Korean Music and Dance**

: Based on the composition of the Goguryeo-style music and dance movements and its status as a court dance

Park Taequ

This paper studies the basic dance movements of Bugaku(舞樂), the composition of Goguryeo-style music & dance, and its status as a court dance.

In 『Kyokunsho(教訓抄)』, a total of 46 Bugaku basic dance movements are recorded. However, one can see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later literature, indicating that the tradition(transmission) has been severed or there are newly added movements. Meanwhile, in Komagaku (高麗樂), the composition of <Daisotoku(退宿德)>, <Shinsotoku(進宿德)>, and <Komaboko(狛鉾)>, which are Goguryeo-style music and dance, mainly consists of 3 parts and commonly uses 8 basic dance movements. Most notable is that these movements have a very long history, and most of them can be found in daily life. The ancient Korean dance was never irrelevant in daily life. Thus, it is highly likely that Komagaku, which was introduced in Japan, includes the same or similar movements of the ancient Korean dance.

On the other hand, based on 『Bugakuyouroku(舞樂要錄)』, by studying



its status as a court dance, it is clear that Goguryeo-styled music & dance have exerted considerable influence. As the ancient Korean wave, Komagaku, Japan contains some of the features of the ancient Korean dance. Obviously this study of Komagaku in Japan can be as a reference for the study of the ancient Korean music and dance, which is in a stalemate due to a lack of absolute data.

#### Keyword

Bugaku(舞樂), Komagaku(高麗樂), Daisotoku(退宿德), Shinsotoku(進宿德), Komaboko(狛鉦), Goguryeo(高句麗)

